

영기단靈氣壇은 여래의 '영기화생 드라마'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수미단, 불탁, 불단→영기단(靈氣壇) ㉞



지난 34회에서는 경흥사(慶興寺) 영기단(靈氣壇)을 다루었는데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으나 측면의 영기문이 고구려 사신총 벽화의 영기문(분지 948호 참조)과 그 원리전개가 정확히 같아서 특별히 다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기단은 은해사(銀海寺) 백흥암(百興庵)에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든 영기단의 조형미술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영기화생의 원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물론, 그 모든 불단의 조형에 변화가 많아서 그 다 양성에 놀란다. 도대체 그토록 풍부한 받아온 조선 시대의 스님들은 어떻게 괘불(掛佛)이나 영기단처럼 위대한 작품들을 수 없이 만들었을까?

다양한 조형언어의 통일성
문자언어로 쓰면 유생들이 모두 읽을 수 있어서 더욱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형언어로 작품을 만들면 유생들은 읽을 수 없어서 탄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폭발적으로 조형미술에서 불교의 정신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런 불교 미술의 요소는 조선시대 궁궐건축에서도 꽃피우고 있으나, 왕과 유생들은 그 조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불교미술이라 해도 그 불교미술이 선도미술(仙道美術)의 바탕 위에 성립한 것이어서 불교미술에 우리민족의 근원적인 사상과 그것을 표현한 조형미술이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그런 수 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어온 우리나라 조형들을 집약시킨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기단이다.(그림 ①) 크고 작은 구획된 불단 가운데 세 영기문만을 선정하여 채색분석해 보았다. 선묘(線描)를 직접하고 채색분석해보면서 영기단의

용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실하여 기쁘기 그지 없다. 올바른 용어를 만들려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용의 입에서 나온 영기꽃(모란 모양)과 같은 영기꽃이 피어나는 영기문이 불단 가운데 있다.(그림 ②) 모란이 아니라는 것은 차차 증명할 것이다. 중앙에 영기꽃과 줄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영기문이 기세 좋게 구상적으로 발산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는 앞같이 보이거나 잎이 아니고 영기꽃을 구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양쪽에서 두 영수가 화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르기 어렵지만 용의 속성을 지닌 영수다. 꼬리에는 태극모양이나 기세가 강한 영기문이 연이어져 있는데 이 역시 꼬리로부터 영수가 화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화생한 만물(영수가 대표)에서 영기문이 발산하는데 이런 과정이 영기화생론의 골자다.(영기에서 만물이 화생하고 화생한 만물에서 영기가 발산한다) 그래서 영수의 발이나 몸에서 각각 빨간 색의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예로 앞 회에서 다룬 영기문의 조형과 똑같이 전개하는 도상이 있다.(그림 ③) 즉 고구려 사신총 벽화의 영기문의 전개와 똑같은 원리로 전개되 영기 줄기에서 갖가지 제3영기꽃들이 돌아와서 나오니 매우 강력한 영기문이다.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 거대한 보주(보주 색으로 칠한 것: 원래 색은 금색이다)를 감싼 큰 영기꽃이 활짝 피어 있다. 그런 영기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사이에서 두 물고기가 화생하고 있다. 이 백흥암 영기단에는 용의 영기화생 도상도 있는데 물고기의 영기화생과 같은 상징을 띤다.

장식 장엄이란 말로도 부족한 표현
거대한 직육면체의 단 안의 공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며 영기가 가득 차 있음은 이미 언급했다. 즉 그 단 안은 우주의 광활한 공간이요, 허공이다. 그 맨 아래 부분에는 영기장들이 둘러 있고, 영기장 마다에서 용의 정면 얼굴이 나오며 하며 그 입에서 영기꽃이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그림 ④) 흔히 모란이라 말하나 모란이 아니고 만물을 화생시키는 영기꽃이다. 그 까닭은 영기단 모든 도상에는 다양한 영기문이 바탕에 깔려 있거나 입체적으로 조각했는데 그 영기문에서 만물이 화생하고 있다. 갖가지 영조(靈鳥), 영수(靈獸), 용과 마찬가지로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 사슴들 등이 화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게는 백 개가 넘는 구획을 짓고 있어서 영기단은 갖가지 생명생성의 다양한 모습을 망라하고 있어서 영기단이야말로 영기화생의 장엄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장식이 아니며 장식을 높여서 말하는 장엄도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영기단 맨 밑 부분의 용들의 입에서 발산하는 갖가지 영기문들이 영기단 전체에서 갖가지 만물을 탄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즉 영기단 안의 허공에 가득 찬 영적(靈的)인 물(靈水)이 넘쳐흘러 밖으로 나오는 형상을 맨 밑의 영기장들의 용의 정면 얼굴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감회가 깊다. 마침내 단순한 불단이 아니라 여래의 영기화생을 괘불에서와 같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마타 삼존불이 영기화생하는 데 드라마가 안전(眼前)에서 벌어지고 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한 분의 여래를 봉안하는 소규모의 영기좌는 다음 연재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림① 백흥사 극락전. 아미타삼존상



그림② 두 영수가 영기문에서 화생하는 도상



그림④ 맨 밑의 영기장에서 용이 나오며 용의 입에서 양쪽으로 영기꽃이 발산하고 있다.



그림③ 경흥사 불단의 영기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 영기문에서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화생하고 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물김치에 표고조림으로 여름 미각 돋우자



청경채 표고조림

△재료(4인 기준)

- 청경채 5포기
- 생표고버섯 15개, 녹말가루 1/2컵, 식용유
- 소스 : 맛국물 1컵, 간장 1큰 술, 국간장 1큰 술, 산야초 효소 3큰 술, 소금 약간, 참기름 1작은 술

△만드는 법

- ①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크기에 따라 2-3등분 한 후 녹말가루를 입혀 식용유에 노릇노릇하게 튀긴다.
- ② 청경채는 2-4등분 한 후 끓는 물에 소금과 식용유를 넣고 데쳐낸다.

③ 팬에 분량의 소스 재료를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튀겨낸 표고버섯을 넣어 살짝 버무려낸다.

④ 접시에 청경채를 돌려 담고, 표고 조린 것을 담아낸다.

오이 깻잎 향기 물김치

△재료(4인 기준)

- 오이 2개, 소금 2큰 술
- 소 : 깻잎 12장, 무 100g(소금 1/2작은 술), 풋고추 4개, 홍고추 3개
- 국물 : 물 3컵, 황기 15g, 다시마 1장, 소금 1큰 술, 매실액 2큰 술

△만드는 법

- ① 오이는 길이대로 깊숙이 칼집을 넣어



소금물에 절여 씻어 준비한다.

② 소에 들어가는 무는 채를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빼고 채를 썬 청경채와 함께 깻잎에 돌돌 말아 절인 오이에 채워 넣는다.

③ 찬물에 황기와 다시마를 넣고 1시간 정도 담근 뒤 살짝 끓인 후 소금, 매실청으

로 간을 맞춘다.

④ 소를 채운 오이에 국물을 부어 익힌다.

허한 기 보충하는 '황기 물김치'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땀이 흘러 기가 허해지면서 입맛이 없을 때는 식은 보리밥에 잘 익은 시원한 물김치 한 그릇으로도 입맛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황기는 단너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양기를 보하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게 하고 소화촉진 시키는 효능이 있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몸이 지치거나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로서 여름철 물김치 국물을 만들 때 황기 삶은 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주재료로 이노박용에 좋고 위와 장 트러블에 좋은 오이를 사용함으로써 수분을 보충하고 땀을 그치게 하여 기력회복에 좋은 물김치가 된다.

황기와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에 매실액을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을 추가하면 물론 빠른 발효를 돕게 되어 담근 후 빠른 시일 내 먹을 수 있게 된다. 단, 오이를 절여 소를 채운 다음 2-3시간 정도 지난 후 국물을 부어야 오이의 간이 골고루 배어 맛이 있다.

청경채 표고조림의 청경채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과 식용유를 넣고 삶아야 윤기가 나며 계절에 따라 시금치를 이용해도 좋다. 표고버섯은 노릇노릇하게 튀긴 후 맛국물에 넣어 센불에서 단시간에 볶아내어야 질감을 살릴 수 있으며 표고버섯을 튀길 때의 녹말로 인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가 된다. 생표고를 사용하게 되면 부드러운 질감이 좋으며 건표고를 사용할 경우는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루키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